

장애인의 외침,

“이기가 아파요!”

치과계에서 장애인 진료를 하고 있는 치과의사가 다수 존재하긴 하지만 장애인 진료 일선에 있는 치과의사는 장애인 진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한숨을 내뿜는다.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며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국민복지를 위한 대의적 측면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해서도 안된다. 장애인 치과 진료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 취재/안정미기자



장애인 구강 상태 “열악”

장애인 치과가 모자란다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그리고 정신지체로 나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95년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105만명, 전체인구의 2.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행 장애범위와 기준을 근거로 할 때 2020년에는 약 2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그래도 이만큼이나마 생기게 된 계기는 지난 88서울올림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올림픽을 개최한 후에는 장애인 올림픽을 개최기로 되어 정부에서 장애인 숫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해 점차 관심을 갖게 됐다.

당시 장애인들은 지금에 비해서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에 상당히 인색해 정부에서 장애인의 숫자만을 파악하는 데도 어려웠다고 한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지금은 장애인 스스로도 당당하게 자신이 장애인임을 밝히고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용어도 변화됐다. 과거에는 장애인이란 용어 대신 장애아와 장애자로 구분해 어른과 아이를 나눴으나 현재는 어른과 아이를 통칭하여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정상인으로 칭했으나 현재는 비장애인이 올바른 표현으로 통용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여기에 치과진료도 예외일 수 없다. 치과계에서 장애인 진료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여러 곳에 장애인 치과가 있는 듯해 보이지만 그래도 장애인이 치과를 이용하기에는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다.

구강위생상태, “심각하다”

78년 대한소아치과학회지에 근거해 우리나라 장애아동의 구강위생상태를 살펴보면 정상아동의 구강위



분당의 한 치과병원에서는 특수진료과를 개설해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생지수가 1.01임에 반해 뇌성마비아동은 2.00, 소아마비아동은 1.94, 기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은 1.79로서 지체부자유 아동의 구강위생상태가 정상아동에 비해 극히 불량하고 연령증가에 따라서도 악화된 양상을 보였다.

장애아동의 경우 구강위생에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여 구강관리상태가 불량하고 정상인보다 구강진료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가 심하여 의원에 내원하기에도 불편한 점이 많아 구강건강수준을 증진시키기 어렵다.

구강진료시의 긴장으로 인해 전신질환 및 장애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구강진료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약물이나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구강영역의 기형이나 이상을 수반하고 있거나 특별한 약물의 복용으로 인해 구강상태가 열악한 경우도 많아 구강진료 자체의 어려움이 많다.

장애로 인하여 구강진료의 예후가 보장되지 않고 계속관리가 어려워 힘들게 진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욱 어려운 형태의 진료를 필요로 하기 쉽다.

장애인 진료, 봉사로 그쳐선 안돼

-이게 치실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양치질을 잘 한다고 해도 치석이 생
겨요.
-그러니깐 이것을 이용해서 치아를 깨끗
하게 하셔야 돼요.
-두 번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한번은 이쪽면을 닦아주시구요 또
한번은 다른 쪽면을 문질러 주세요.
-집에서 꼭 하셔야 돼요. 약국에서도
팔아요.

국립재활원의 장애인치과에서 한 간
호사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40대 초반
정도의, 정신연령은 10대 정도인 장애인
에게 구강위생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다.

장애인의 문제점

이들이 과연 치실을 가지고 치아의 치석제거를 할
수 있을까? 아니 하루에 세 번만이라도 양치질을 제
대로 하기는 하는걸까?

△ 구강질환은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말을 잘 못하고 보
이지가 않는데 구강질환이 무엇이 대단한가요" 장
애인 부모의 말이다.

자폐 증상을 보이는 아이의 한 부모는 아이에게
양치질을 시키려면 한마디로 '전쟁'을 치러야 한다
고 한다. 특히 부모는 장애인의 복지요구를 충족시
켜주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재정
적, 심리적,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구강질환에
대한 치료는 뒤로 미루게 된다.

21세기 치과병원의 최길라 과장은 "장애인의 구강
질환 특징을 살펴보면 물론 발생률에서도 비장애인
보다 높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질환정도가 비장애인
에 비해 심합니다"라고 지적한다.

△ 치과에 가기가 너무 어렵다

치과의 위치가 대부분 2,3층에 있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을 경우 장애인이 출입하기에 어
려운 점이 있다.

△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1990년 서울시의 등록장애인에 대한 조사에 의하
면 등록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은 46만원 정도
이며 월소득 4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가 42.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월평균 50만원 미
만인 가구가 56%로서 절반을 넘고 있는 실정이다.

△ 병원 대기실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느껴진다, 일반인의 눈총이 따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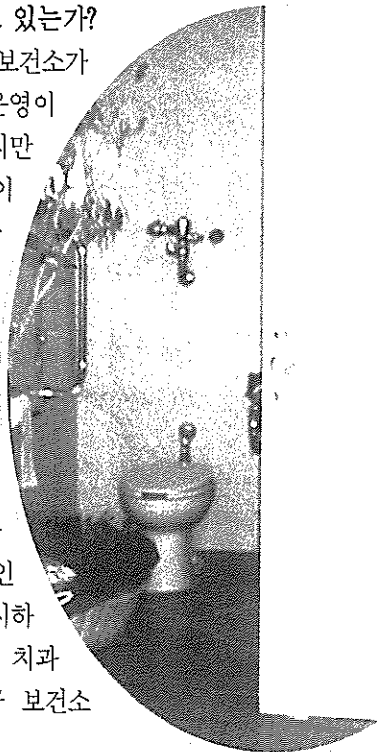
치과의사의 문제점

△ 나는 장애인을 기피하는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시절 등 살아오면서 장
애인을 접해본 경험이 없을 경우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물론 치과의사 중에서는 치대 교과과정
에서 장애인 진료에 대해 배우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임상실습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있다.

△ 나는 얼마나 장애인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는가?

처음 서초구 보건소가
생겼을 당시 운영이
그다지 매끄럽지만
은 앉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
다. 그러나 관에
서 주도하는
만큼 반강제적
인 성격을 띠
게 됐고 서초구
치과의사회에서
도 적극 사업을
받아들여 장애인
진료 봉사를 실시하
게 되면서 많은 치과
의사들이 서초구 보건소
를 거쳐갔다.



한 치과병원에 설치된 장애인용 화장실

그 중에서는 정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진료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감에서 진료를 하게 됐을 수도 있지만 하나같이 하는 말은 장애인 진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 나는 얼마나 장애인을 진료하고자 노력하는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환자에 비해 몇시간씩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진료하라고 권유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으나 조금만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산구보건소의 경우 토요일에는 장애인을 진료하기로 하고 있으며 요셉치과에서는 오후 시간에 장애인을 진료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치과에서는 특정한 요일이나 시간을 장애인 진료로 할애하고 있다.

제도적 문제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정부에 의한 조직적인 지원인데 단시일내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보험수가 면에서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의료보험치과진료수가기준액표에 따르면 만 6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 초진을 행한 경우에는 350원, 재진을 행한 경우에는 150원을 가산하되 장애인복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수첩을 교부받은 뇌성마비 또는 정신지체에 대하여는 연령 및 초재진을 불문하고 500원을 가산한다고 명시돼 있다.

장애인을 진료하는데 시간적인 면에서 노동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수가에는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진료를 1차기관에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료로 진료하는 장애인 치과에 장애인이 몰리고 있다.

국립재활병원이나 서초구보건소 등 서울에서 알려진 장애인 치과의 경우에는 환자가 너무 많이 몰린다.

서초구 보건소의 경우 지난 7월 28일 진료한 자폐

아의 경우 다시 내원할 날짜가 10월에 예약이 돼 있을 정도다.

경희치대 이공호 교수는 “장애인도 등급이 나뉘게 됩니다. 1차 개인의원에서는 가벼운 경증을 보이는 장애인의 70-80%정도는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치과병원급에서 10-20%정도의 환자를 흡수하고, 대학병원에서는 전신마취를 해야하는 장애인 또는 입원해야 하는 장애인 5-10%정도를 흡수하는 의료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한다.

교육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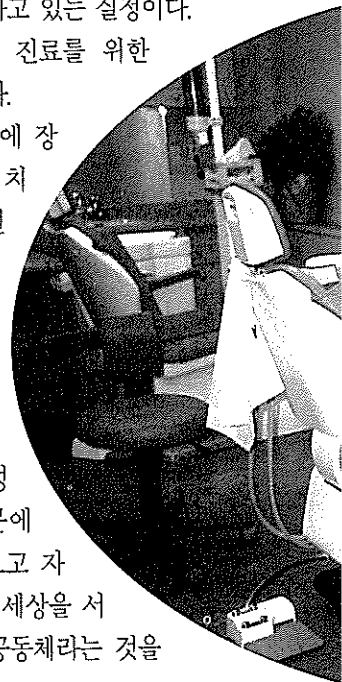
11개 치대에서 학부과정 중 장애인 치과 관련 과목이 개설돼 학점을 부여하는 곳은 단 1개교에 불과하며 장애인진료를 위한 장애인진료실이 따로 마련된 학교는 3개교에 불과했다.

그리고 소아치과에서 장애인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과거에는 장애인이 장수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소아치과에서 진료했지만 지금은 장애인의 수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일부 과에서만 주로 하고 있어 전반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수교육에서도 장애인 진료를 위한 과목이 선정되지 않고 있다.

일선 교수들은 학부과정에 장애인 진료를 배우는 것은 치과 의사의 인성교육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동의한다.

부산 남포치과의원 박희정 원장은 장애인 진료 활동을 하면서 배우는 점이 너무나 많다고 한다. 성장기에는 주위환경 때문에 친구를 경쟁 상대로 바라보고 자만심만 가득하던 그가 이 세상을 서로 돕고 사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중추기관이 필요하다

분당의 한 치과.

새로 개원한 치과병원급이다.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 바로 정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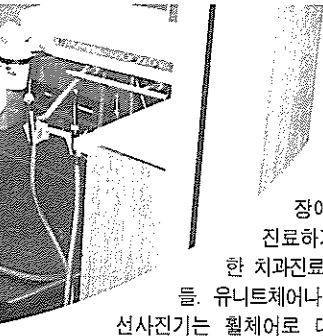
정문 바로 옆에 또 하나의 문이 있다. 이 치과병원은 정문이 두 개인 셈이다.

한 쪽의 문에는 특수진료과라고 적혀 있다.

바로 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곳이다.

출입문 자체가 분리돼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실까지 분리돼 있어 장애인도 당당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화장실도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있다.

유니트케어는 바퀴가 달려 있어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은 유니트케어를 이동시킨 후 휠체어에 앉아 진료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휠체어를 올려놓을 수 있는 장비, 방사선 사진기도 이동이 가능하고 세면대도 낮게 배치돼 있다.



장애인을 진료하기 위한 치과진료 장비들. 유니트케어나 방사선사진기는 휠체어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바퀴가 달려 있다.



장애아동의 경우 정상인보다 구강진료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가 심하고 의원에 내원하기에도 불편한 점이 많아 구강건강수준을 증진시키기 어렵다.

시도별 진료시설 시급해

장애인 진료를 계속해온 한 치과의사가 뜻을 가지고 2차병원급에서 장애인 전문 치과를 개설한 것이다.

장애인이 일반치과를 이용하기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어떤 개원의는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고 대학병원에 가니 비용이 너무 고가이다. 보건소에 가자니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곳이 드물고 재활병원의 치과에 가자니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해 있다.

서초구보건소 장애인치과 문명자씨는 처음 장애인치과에서 일할 당시만 해도 장애인 치과가 알려지지 않아서 장애인이 많이 찾아오지 않았지만 현재는 너무 많은 장애인이 찾아와서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치과에 몸담으면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 조금씩 눈을 뜨게 됐는데 서울시의 25개 보건소만이라도 장애인치과를 마련하고 장애인을 흡수할 수 있다면 현재의 환자적체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고 한다.

각 시도별로 장애인 전문기관이 존재한다면 그나마 장애인이 치과를 이용하는데 좀더 수월해질 수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장애인치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면 장애인의 구강위생은 한결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국립재활원 치과의 최승현 과장은 "국립재활원에서 진료를 한 후에도 계속사업이 이어지지 않아 답답합니다. 선진외국에서는 대학병원과 지역헬스 센터 등이 연계돼 계속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재활원에서 진료받은 전국의 환자들이 어느 정도 지역로컬이나 보건소에서 흡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장애인을 둔 한 부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이에게 양치질을 시키기보다 차라리 3개월에 한번씩 검사받는게 더 낫아요 그때에는 기본적으로 치면세미는 해주거든요” 이런 부모의 경우에는 그나마 가까운 곳의 보건소에 장애인 치과가 존재하는 경우다.

건축법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명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부여되는 등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치과계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상담’ 제도 등 1차기관에서 흡수해야

일본의 현 단위 치과의사회에서는 ‘상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상담’ 제도는 일종의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일반 개원가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제도다.

일본의 ‘상담’ 제도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장애인 진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후 간판 등에 장애인을 상담할 수 있는 표시를 해두어 장애인이 거리낌 없

이 일반 개원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장애인이 모이는 곳을 선호하고 일반개원의를 피하게 되는데 ‘상담’ 제도 등을 통해 장애인을 진료한다면 개원가에서도 장애인을 진료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장애인을 흡수할 수 있고 장애인도 당당하게 개원가에서 진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디렉토리 구성 통한 지속적 연구 필요

장애인 진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치과계에 서서히 일고 있다.

21세기 치과병원 최길라 과장은 “한 사람의 힘은 적지만 조직이 있으면 커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진료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장애인 진료에 대한 경험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해요”라고 말한다.

조직적인 장애인 진료 디렉토리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 장애인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좀더 많은 치과의사 선생님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 장애인 진료를 하고 있지 않지만 장애인 진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은 분들이 조직적으로 모이고자 합니다.

전화번호는 0342) 708-0021이며 최길라 선생님을 찾아주세요.

※ 최길라 선생님은 21세기 치과병원의 특수진료실에서 장애인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